

## 하박국네 이야기 2018. 7

E-mail : [kahh1691@hanmail.net](mailto:kahh1691@hanmail.net) 연락처 : 070-4643-7633 (인터넷 전화)  
(855)096-345-5024 / 096-358-6300 (캄보디아)  
카카오ID : kahh0691 후원계좌 : 884-06767-266-01 시티은행 가형호  
502-910658-70507 K E B 하나은행 가형호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 요한복음 16 : 32 - 33 )



올해는 한국이나 해외에서도 너무나 긴장감을 감동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 더욱더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한국과 전 세계가 살얼음을 걷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으로도 더욱더 긴장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영적으로 나태와 태만에 빠진다면 여지없이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아침인가 싶으면 점심이 되고 점심인가 싶으면 벌써 밤이 되고... 첫 달 시작이다 싶었는데 벌써 월말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시간은 기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정말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떤 일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요즘 학사아이들하고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온 열정과 힘을 다하여 가르치고 영적으로 먹이셨는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나눈 말씀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른다고 말하였던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부인할 것까지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역장이 무너지는 마음 이었지만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경려하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 가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질 때로 망가진 제자들을... 우리들을 다시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일군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존재들임을 다시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마음이 이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누리며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히 얻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맨 위에 사진은 4년 전에 지금의 사역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을 하였던 아주머니 언니 집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 같이 신학공부를 하였던 동기목사님들과 잠시 방문하였을 때 반갑게 맞아주시는 아주머니를 보면서 들어오면서 힘들었던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 오토바이 두 대를 빌려서 타고 들어갔는데 오고가는 길이 비가 와서 진흙탕이 되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주머니 댁에 매주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들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유 두 묶음을 드리는데 항상 감사하다고 직접 농사를 지으신 농작물을 챙겨주시면서 농약을 치지 않고 유기농으로 길러서 건강에도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주시는 아주머니를 생각하면 어렸을 때 우리 시골의 인심이 풍성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더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소원하기는 이작은 섬(깨트메이: 새로운 섬)이 신앙촌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섬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섬이 되길 소원해 봅니다. 이곳에 교회와 문화센터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예배 ♥



꺼쓰면 예배장소를 새롭게 단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꺼쓰면 학교 교실 밑에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은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곳은 바닥이 전부 흙으로 채워져서 비가 오면 땅이 진흙탕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물이 차기도하고 빗물에 젖어서 물이 없는 곳을 찾아 이동하여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장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바닥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배장소를 위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지 않고 한 장소에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

이번 달 7월 29일이 캄보디아 지도자 총리를 뽑는 선거가 있는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유세에 동참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고 주일에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기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는 아이들이 반 이상 줄게 되었습니다. 이곳 교육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또 선생님들의 월급이 적다보니 보충수업을 통해 돈을 벌게 되었고 정규수업에는 아예 수업진도를 나가지 않는 일들도 있고 보충 수업때 수업진도뿐만 아니라 보충 수업에 참여해야 시험점수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보충 수업에 빠지면 수업을 따라갈 수도 없고 시험점수도 받을 수 없는 악습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곳 캄보디아 교육의 실정입니다. 작년에 교사 월급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도 이러한 악습이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이니 예배를 드려야하니 보충수업에 빠지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무거운 심정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악순환이 멈추고 정규수업에도 진정한 교사로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최선을 대해 가르치며 보충 수업에는 미진한 학생들만 공부할 수 있는 수업형태로 바뀌어지고 질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도 동역자 방문 ♥



신학생때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였던 목사님 두 분이 저희 사역지에 방문하였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셨는데 한분이 작년에 간암으로 완전히 사형선교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어 제 2의 삶을 사시는 살아있는 자체가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는 곳곳마다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분 목사님이 작년에 암수술을 하여서 혹시나 여행중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씨엠립에서 프놈펜으로 오는 비행기 표를 끊었는데 프놈펜으로 오는 편도 표가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치소가 되어서 하는 수 없이 차를 몰고 씨엠립으로 내려가서 손님을 모시고 깜뽕짬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올라오면서 말로만 듣던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채취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는데 나무에서 고무의 재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29-3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 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아무리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할 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꽃 하나의 아름다움에도 미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들에 있는 들꽃 하나의 생명도 만들지 못하고 뛰어난 기계나 로봇은 만들지 모르나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지는 못하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지 그자체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들에 있는 들꽃까지 입히시고 가꾸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맞보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깜뽕짬에 도착해서 점심식사를 한 뒤 바로 사역지로 가서 매주일 성경공부를 하는 히응가족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곳 캄보디아는 나라전체가 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이들의 삶과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기에 더욱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이러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싸움이 치열하지...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하는 마음에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 기도제목 ♥

1.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군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캄보디아의 교육수준은 동남아에서 최고로 낮은 수준임, 캄보디아 학교 교육이 개선되어서 아이들이 좋은 교육의 질의 공부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2. 큰 섬(꺼쏘띠) 지역과 작은 섬(꺼트메이) 두 지역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기쁨의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작은 섬(꺼트메이)에 교회와 문화센터가 세워져서 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신앙촌으로 거듭나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이 섬들이 우상을 섬기며 드렸던 모든 것들이 바뀌어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 되어질 수 있게 하소서.

3. 이제 우기철이 시작되면서 땅이 많이 미끄럽고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두개의 섬에 있는 예배장소가 가기위해 오토바이에 짐을 싣고 들어가고 있는데 모든 길에 안전과, 안전운행 할 수 있게 하소서. 큰 섬으로 들어가는 다리는 놓아졌지만 아직도 들어가는 길이 비포장한 곳들이 곳곳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곳도 속히 포장되어 완공이 되며 작은 섬을 잇는 다리도 놓아질 수 있게 하소서.

4. 캄보디아 나라전체가 하나의 절과도 같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힌두와 불교문화에 찌들어 있는 이곳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춘기 이전에 아이들이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춘기가 지나면 거의 신앙인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때에 모든 사고가 굳어져서 더 이상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인간의 최악된 습성 때문에 중학생이나 이전에 아이들을 데려다가 신앙인으로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중학생들 학사도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중학생은 생활비와 학비가 한 명당 약  $75\$ \times 4 = 300\$$  이 들어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여자 사역자도 보내주셔서 여자 어린아이들을 잘 보살피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소서. **(중학교부터 학사를 하기위해서 한 사람당 10년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한명씩 자매 결연을 하여서 후원과 기도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씨타 학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올해 고등학교 졸업시험(8/21)에 합격하고 대학교 입학하여서 필요한 전공을 배워서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군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생활비와 학비 한 달에 약 200\$이 들어가는데 모든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소서.

6. 다란청년이 성경공부를 통하여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며 거듭남의 비밀과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군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매주일 오토바이 운전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학업에도 지혜를 주셔서 잘 마무리 하게 하시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잘 세워지게 하소서. 올해 9월 달부터 4학년이 되는데 학생의 수가 적어서 주말반(토요일과 주일) 하루 온종일 학교에 공부하러 가야하는데 그러면 주일 사역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지혜를 주셔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아니면 주말반이 주중 반으로 바뀌게 하셔서 주일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소서.

7. 모든 가족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영적분별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하은, 하원, 하영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며 필요한 학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고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좋은 일군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며, 올해 주 파송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소서.